



인공지능 대전환부터 통상 현안까지, 주요국 지식재산 현안 집중 점검!

- 지식재산처, 제1회 해외 지식재산관 회의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2.(월) 14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15층 대회의실에서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및 제네바 주재 지식재산관 및 한국지식재산협회,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해외 지식재산관 회의’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과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지식재산처가 추진 중인 K-브랜드 인증제도의 현지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지식재산관들은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정책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지식재산 보호·집행과 분쟁 ▲미국 관세협상 등 주요 지식재산 통상 현안을 중심으로 담당 지역의 정책·산업 동향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제도 변화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지식재산처는 회의에서 파악한 주요국의 정책과 산업 정보를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신속히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활용·보호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식재산이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해외 지식재산관을 통해 주요국의 정책과 시장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활용·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이승관 (042-481-5063)
		담당자	서기관	강희만 (042-481-8766)

